

대구 주보

연중 제31주일 2017. 11. 5.(가해) 제2077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은 말만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윗자리, 높은 자리, 인사받기, 스승이라 불리길 좋아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마태 23,1-12 참조) 겸손한 이의 작은 선행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 정미연 소화대레사 작

제1독서 말라 1,14ㄴ-2,2ㄴ.8-10 **제2독서** 1테살 2,7ㄴ-9,13 **복음** 마태 23,1-12.

화답송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종민 마태오 신부 | 병원사목부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질책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회당의 전면 단상에는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거기에 앉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구갑을 이마와 왼팔에 댔습니다. 성구갑은 신명기 6장의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넣은 작은 용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너희는 너희 손에 감은 표징과 너희 이마에 붙인 기념의 표지로 여겨, 주님의 가르침을 되뇌 수 있게 하여라.”(탈출 13,9), “이것을 네 손에 감은 표징과 네 이마에 붙인 표지로 여겨라.”(탈출 13,16),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신명 6,8)라는 말씀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실제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던 이 노력은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허영심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든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군중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고 하십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나의 자리”를 되돌아봅시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간직합시다. 우리의 행실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만들어 갑시다. **말씀**

제10장 창조물의 보전 : 환경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 창조를 보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캣』 256, 257항)

“하느님은 친히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는 태초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이 하느님 뜻에 따라 고귀하게 쓰이기를 바라시면서 이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창세 1,27~29 참조)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돌보는 일을 ‘창조의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보전’은 자연 전체를 마치 보호의 대상으로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두캣』 257항) 자연은 인간에게 넉넉한 어머니의 품이 되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가혹한 채찍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태풍, 지진,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다 감염병, 해충까지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의 냉혹한 모습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창조의 보전은 자연에서 보전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신학적, 생태학적, 경제학적, 미학적, 문화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해서 지켜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2. 교회는 생태환경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나요? (『두캣』 259, 260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구를 모든 사람의 ‘공동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인류 가족을 함께 모아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을 함께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우리만 편하자고 미래 세대의 몫을 먼저 빼앗아버리지 말자는 뜻이고, 온전한 발전이라 함은 몇몇 특권적인 국가나 사회 계층만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발전의 길을 가자는 뜻입니다.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지요. 예컨대 강을 난개발해서 수질이 엉망이 되면, 부자들은 생수를 사마시거나 정수기를 쓰지만 가난한 이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아야 합니다.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은 재벌 기업들에게는 싼 전기를 공급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재앙과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말하는 생태 발전은 모든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낙원은 하느님께서 실현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시작을 하느님께서 하셨듯이 그 완성도 하느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창조사업의 협력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두캣』 제10장의 내용입니다. **▶▶▶**

하느님을 향한 하나 된 울림!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공연장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무심코 들은 음악 한 곡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연출하는 멜로디만으로도 듣는 이들의 가슴에 감동과 여운을 남길 뿐만 아니라, 한 소절 아름다운 가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고전음악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에서 동양음악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음악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듣는 모든 이의 가슴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흔히 음악은 언어와 시공의 장벽을 초월하는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최상의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로 재현하는 합창은 어떨까요? 거기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사를 더하면 또 어떨까요?

대구대교구 가톨릭남성합창단은 자신의 몸을 ‘악기’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노력하고 봉사하는 신심단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성악가가 아닌 각 본당 일반신자들로 구성되어, 주말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과 정성을 다하며 봉헌하는 음악이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2005년 9월에 창단되고 2007년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 등록된 후 2009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가톨릭남성합창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이듬해부터는 대구·경북지역 여러 본당의 초청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각 본당 신부님들과 형제자매님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 활동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지역 두 개 본당의 주일 저녁미사에서 전례 봉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매월 셋째 주일 저녁 8시 미사에 전례봉사를 하고 있으며, 교구의 큰 행사에도 초대를 받아 봉사하는 등 음악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단원들 자신도 형언할 수 없는 은총과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성합창단은 시끄럽고 투박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성 특유의 웅장함과 여성합창단 못지않은 섬세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해 냅니다. 그래서 단원들은 연습 때마다 합창의 묘미를 한껏 실감하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때로는 술한 난관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단원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팀워크에서도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어내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합창단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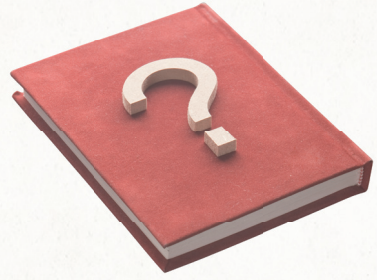
현재 가톨릭남성합창단은 계산문화관 5층에 연습실을 두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주는 토요일 저녁 6시에, 그리고 주일 저녁미사 때 전례봉사를 하는 첫째, 셋째 주는 일요일 저녁 5시에 연습을 합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형제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필문**



지도신부: 김종헌 발다살, 지휘자: 이정아 체칠리아
문의: 단장 황해식 도마 (010)3817-1963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그리스도 양자설 - 養子說 <라> adoptianismus <영> adoptianism, adoptionism

“그리스도 입양설”이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그리스도 양자설”이란 인간이었던 예수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이단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적 - 敵 <라> antichristus <영> antichrist

주로 요한 서간들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교리를 퍼뜨리며 그분께 대항하면서 그분의 제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금육재 禁肉齋 <라> abstinentia <영> abstinence

대축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금요일에는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를 지킵니다.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킵니다.(교회법 제1251조 참조)

긍정 신학 肯定神學 <라> kataphatismus <영> cataphatism

예컨대, 하느님은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의 방법(否定方法: via negativa)으로 전개하는 신학을 “부정 신학”(apophatismus)이라 하고, 이에 대비되는 신학으로서 하느님은 무엇이라고 하는 긍정의 방법으로 전개하는 신학을 “긍정 신학”(kataphatismus)이라고 합니다.

기념일 紀念日 <라> memoria <영> memorial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신심을 위하여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을 기념하도록 지정한 전례 일을 말합니다. 보편(세계) 교회에 중요한 성인들은 교회 전체가 의무 기념일(<라> memoria obligatoria <영> obligatory memorial)로 경축하고, 그 밖의 성인들의 축제는 전례력에 선택 기념일(<라> memoria ad libitum <영> optional memorial)로 올립니다. 기념일 전례는 교회 규범에 따라 해당 평일 전례와 연결하여 거행하며, 주일과 겹칠 경우 기념일 전례를 생략합니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8-15항)

냉담 교우 冷淡教友 <라> tepidus <영> tepid Christian

미사 참석과 성사 생활을 중단한 신자를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 전과 성탄 전에 하는 두 차례 판공성사를 3년 이상 받지 않은 신자를 냉담 교우로 분류합니다. “냉담자”는 “냉담 교우”로 순화합니다.

노자 성체 路資聖體 <라><영> viaticum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가 마지막으로 모시는 성체를 말합니다. 라틴어 어원은 ‘여행을 위한 준비(돈)’ 혹은 ‘여행을 위한 양식’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발췌_ 『천주교 용어집』 (2017)>



- 10. 29(일) _ 가천성당 견진성사
- 11. 2(목) _ 위령의 날 미사 / 사진가회 전시회 개막식
- 11. 3(금) _ 전국가톨릭경제인회 피정 파견미사



- 10. 29(일) _ 수성성당 견진성사
- 10. 31(화) ~ 11. 2(목) _ 대만 대중교구 방문

대구주보 표지 '정미연 작가의 성화묵상'

2018 북타입 스마트 탁상용 신앙캘린더 출시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기존 신앙다이어리를 대신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북타입의 스마트 탁상용 신앙캘린더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탁상용 신앙 캘린더는 그동안 대구주보 표지를 장식했던 성화 작가 정미연(소화대레사)님의 작품을 선정하여 매월 그림 묵상과 함께 전례생활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가격: 7,000원(예약기간 내 선주문하시면 1,000원 할인)

예약기간: 10월 30일(월)~11월 17일(금)

예약 및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6~9

* 택배비는 별도이나 100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기 위한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기간: 11.11(토) 14:00~12(일) 15:00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대상: 가나 강좌를 이수한 결혼한 지 5년 이하 부부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위령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6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1월 6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밀알빛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11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1월 7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6일(월) 11:00 죽도성당	수능기원미사	11월 14일(화) 11:00 성모당

대리구 소식

2대리구 젊은이 기도 모임(Hello 하느님)

일시: 11.8(수) 19:30 미사 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장소: 주교좌범어대성당 프란치스코성전

진행: 성바로로말수도회

준비물: 성경 / 문의: (010)2503-5185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11(토) 14:30

내용: 가을 도보순례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11(토) / 11.12(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대상: 선교 수도생활을 원하는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11월 한티 피정

그대 어디로 가는가: 11.18(토)~19(일)

지도: 홍경혜, 홍승란

쉬는하루(산책기도): 11.20(월)

지도: 김형수 신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11.23~25 / 12.1~4 / 12.7~9

12.30~1.2 / 1.8~10 / 1.17~19 / 1.23~26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제49차 신약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1.24(금)~26(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참조

교육 | 모집 | 기타

빛떼제기도

일시: 11.11(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3526-1208

성심유치원 입학설명회

일시: 11.18(토) 10:00

원서교부: 12.1(금)~6(수) 9:00~18:00

장소: 성심유치원

대상: 만 3~4세 / 문의: 553-1090

2018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0.30(월)~11.10(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3(일반), 850-3506(교육),

660-5252(특수) <http://www.cu.ac.kr>

'유스티노자주대학원' 신설

30회 대구시청소년수련 영어캠프 모집

출발: 12.30(토) 4주, 8주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내 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곳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7_6차)

일시: 11.9(목) 13:3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무릎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강사: 정형외과 최원기 교수

발아정형외과
발아플랜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외)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장성훈
남아나고 꿈꾸어 나다
대구공고네거리 대구은행 버스정류장옆
40인 단체방 어린이놀이방 완비
T.053)941-7008 정창훈(안드레아)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훈 (바오로)
피부진료 아토피|알레르기|시마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여드름|홍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중앙로역 3번출구 T.053) 651-8800

곽안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에서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보건복지부 선정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정병원
전인병원
수술 후 암·재활·통증 치료
053) 670-6000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 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행사 | 모임

제1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1.19(일) 9:00~18: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호성교정 실내체육관
 마감: 11.5(일) / 문의: (010)3153-7536
 다음카페: 대구가톨릭배드민턴연합회

제8기 아카데미수강생 수료 전시회 및 제10기 아카데미수강생 모집

전시회: 11.8(수)~10(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1-1543

2017 추수 감사 미사

일시: 11.12(일) 13:00~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차량: 교구청 내 대건인쇄소 앞 12:30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교육 | 모집

가나 피정 개설

기간: 11.11(토)~12(일), 연하리피정의집
 대상: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부부
 참가비: 부부당 4만원(1인 2만원)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님 초청 특강

일시: 11.12(일) 13:00
 장소: 대안성당 1층 성전
 주제: 삶, 꺼안기 / 문의: 252-6249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 신앙 특강

일시: 11.18(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죽음에서 생명을
 강사: 배은주(이사악) 수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11월_마진우(요셉)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2018 평신도·수도자 신학석사과정 모집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원(야간)
 원서접수: 10.30(월)~11.10(금)
 학위취득: 논문석사과정, 교과석사과정
 문의: 남산동캠퍼스, 660-5111

채용 | 안내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계약직원 채용

자격: 대졸, 35세 이하, 1명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자소서
 마감: 11.10(금) kim-sinbu@hanmail.net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1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우리 교구와 교구 내 언론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홍배(안토니오), 이주은(가밀라), 김영만(바오로)

2018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8년 대구주보 광고접수에는 기존 1,2차 순번추첨과 위임신청제를 없애고
광고접수시간 예고제를 시행합니다.

- 사전서류접수: 10.30(월)~11.10(금) 제출방법: 문화홍보실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일: 11.23(목) 장소: 대건관 2층 가정사목담당 회의실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 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순번추첨일부터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제란?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상 접수시간을 계산하여 문화홍보실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장기보고내과
 원 장! 내과전문! 조 재 현 (세례자요한)
 위·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당뇨병·고혈압 및 내과질환
 Tel. 053 791 7585
 지하철 2호선 신매역 경산방향 5번 출구
 신현은행 사지점 건물 3층 (달구벌대로 3218)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 강 검 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010-2624-0322
 경산조폐공사 정문 앞

아토피·에민피부 특화병원
 www.dalsungskin.com
달성피부과·성형외과
 아토피 체질치료/아토피 피부관리/레이저
 민감성피부 성형수술/비만크리닉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아네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첫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에페 6.7)
 말씀을 기억합니다.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053-424-8525